

- 주요 뉴스: ECB, 주요 정책금리 동결.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은 매파적으로 평가
 - 미국 1월 ISM 서비스 경기지수, 11개월래 최저. 오미크론 확산 등이 주요 원인
 - 영란은행,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기준금리 인상. 자산매입 규모도 축소할 방침
 - WTI 가격, 7년여 만에 배럴당 90달러 돌파. 공급 부족 우려 등이 배경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기업실적 부진과 ECB 통화긴축 가능성 등이 영향

주가 하락[-2.4%], 달러화 약세[-0.6%], 금리 상승[+6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META 등 빅테크주의 실적 부진 등으로 매도 증가
유로 Stoxx600지수는 ECB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1.8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ECB의 통화긴축 전환 전망 등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
유로화가치는 1.2% 상승, 엔화는 0.4% 절하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상 전망 등이 반영
독일은 역내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 등으로 10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01.6원, -5.9원) 0.5% 하락, 한국 CDS 보합

2/3일					2/2일					전일대비				
주가	미국	4,477.4	4,589.4	-2.44%	국채 금리 10y	미국	1.83%	1.78%	6bp					
	유럽	468.63	477.01	-1.76%		독일	0.14%	0.04%	10bp					
	중국	휴장	휴장	-	CDS 5y	한국	25bp	25bp	0bp					
	일본	27,241	27,534	-1.06%		중국	49bp	49bp	0bp					
	한국	2,707.8	2,663.3	1.67%	위험 지표	EMBI+	-	407	-					
달러지수	95.35	95.94	-0.62%	VIX		24.35	22.09	10.23%						
유로화	1.1440	1.1305	1.19%	WTI유		90.27	88.26	2.28%						
환율	엔화	114.97	114.46	-0.44%	원자재	구리	448.3	449.6	-0.30%					
	위안화	휴장	휴장	-		금	1,804.9	1,806.8	-0.11%					
	원화	1,206.4	1,205.5	-0.07%					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ECB, 주요 정책금리 동결.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은 매파적으로 평가

-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, 예금금리, 한계대출금리를 각각 현행 0%, -0.5%, 0.25%로 유지.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(PEPP)을 통한 신규 채권매입은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3월에 종료할 방침. 다만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재투자는 지속할 계획
- 자산매입프로그램(APP)도 월별 순매입액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결정. 다만 일부 위원들은 자산매입 축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, 정책위원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이전보다 고조된 것으로 추정
-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. 또한 이전과 달리 금년에 금리인상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은 미제시.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년 9월 첫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
- Financial Times는 라가르드 총재가 금년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이는 상당히 매파적(hawkish)이라고 진단. ING의 Carsten Brzeski도 이번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ECB가 매파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1월 ISM 서비스 경기지수, 11개월래 최저. 오미크론 확산 등이 주요 원인

- 같은 달 해당 지수는 59.9를 기록하여 예상치(59.5)를 소폭 상회했으나 전월(62.3) 대비 하락.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 부문의 활동이 위축된 것이 주요 원인. 하위 구성항목 가운데 신규수주와 고용 등이 부진

■ 미국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전주 대비 감소. 1월 고용 둔화는 일시적일 가능성

- 1월 4주차 해당 건수는 23만8천건으로 전주(26만1천건) 및 예상치(24만5천건) 보다 낮은 수준. 이번 결과는 1월에 발표된 고용지표들의 전반적인 부진이 일시적일 수 있음을 시사. Moody's Analytics도 노동시장 회복 속도가 다시 빨라질 것으로 전망

■ 연준 이사 지명자, 인플레이션 대응을 강조하는 현행 통화정책을 지지

- 리사 쿡 지명자는 물가안정의 중요성과 기후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역할을 강조. 다만 실제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

■ 영란은행,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기준금리 인상. 자산매입 규모도 축소할 방침

-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0.25%p 높인 0.5%로 결정. 9명의 통화위원 가운데 5명이 0.25%p, 4명은 0.5%p 인상을 주장. 8950억파운드 규모의 자산매입은 만기 도래 채권의 재투자 중단 등을 통해 3월부터 축소할 전망
- 2004년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했는데, 이는 물가상승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의미. 작년 12월 5.4%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(연간)이 금년 4월 7.25%까지 상승하며 정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
- 베일리 총재는 현 상황에서는 금리인상 없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(2%)까지 낮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언급. 또한 위원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전방위적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
- Pictet Asset Management의 Arun Sai는 9명의 통화위원 중에 4명이나 0.5%p 인상을 주장했음을 고려할 때 이번 결과가 예상보다 매파적(hawkish)이라고 진단. 블룸버그는 3월 혹은 4월 또 한 번의 금리인상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

■ 일본은행 부총재, 현 상황에서 통화긴축은 시기상조

- 와카타베 부총재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으며, 지금 통화긴축을 시행한다면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발언

■ WTI 가격, 7년여 만에 배럴당 90달러 돌파. 공급 부족 우려 등이 배경

- 2/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WTI의 배럴당 가격이 90.27 달러로 종료. OPEC+의 완만한 증산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가 주요 원인. 일부에서는 배럴당 100달러 돌파를 예상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2/3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'21년 12월 제조업수주(전월비): -0.4%, 11월(1.8%), 예상치(-0.2%)
- 유로존 1월 마켓 종합 PMI: 52.3, '21년 12월(53.3), 예상치(52.4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2/4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월 고용보고서, 유로존 '21년 12월 소매매출, 독일 '21년 12월 제조업수주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노동 생산성, 긍정적 전망으로 시장 전반에 관련 효과를 기대 - WSI

(American Workers Could Be About to Get a Lot More Productive)

- 작년 4/4분기 미국의 비농업부문 생산성은 전분기 대비 6.6% 향상. 이는 기저효과와 영향도 있지만,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노동 방식의 변화 등으로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평가
- 특히 그 동안 비대면 근무 능력 강화, 온라인 주문시스템 확산, 반도체 제외 완성차 증가 등이 이루어졌는데, 이는 향후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고 공급 차질 문제가 완화된다면 생산성이 더욱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
- 또한 기업들은 구인난 해소를 위한 생산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. 이와 같은 생산성 향상은 인플레이션 압력 억제와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전망

■ 미국 연준의 긴축 전환, 경제활동이 부진한 대도시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 - 블룸버그

(Fed Deals New York City, Los Angeles Another Setback)

- 미국 내 코로나 19 대유행의 경제적 여파는 지역별로 차별화. 특히 뉴욕과 LA 등 상대적으로 관광 등의 서비스 비중이 높은 대도시의 경우 수요 위축 여파로 여타 지역에 비해 경제활동이 부진
- 이러한 가운데 연준의 통화긴축은 경기회복이 더딘 서비스 중심의 대도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. 이에 해당 지역은 재정정책의 수혜에서 벗어나 통화정책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 정상화가 중요

■ 코로나 19의 영향, 기업의 창조적 활동에는 긍정적 - Financial Times

(Covid entrepreneurs can lead a new wave of creative destruction)

■ 미국 주정부, 향후 위기 가능성을 대비하여 잉여 예산을 비축할 필요 - 블룸버그

(States Should Save Their Surpluses, Not Spend Them)

■ IMF의 빈곤국 채무조정, 중국 영향력 확대로 기존 방식의 지속은 기대안 - Financial Times

(Argentina's IMF deal should be a wake-up call on emerging market debt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